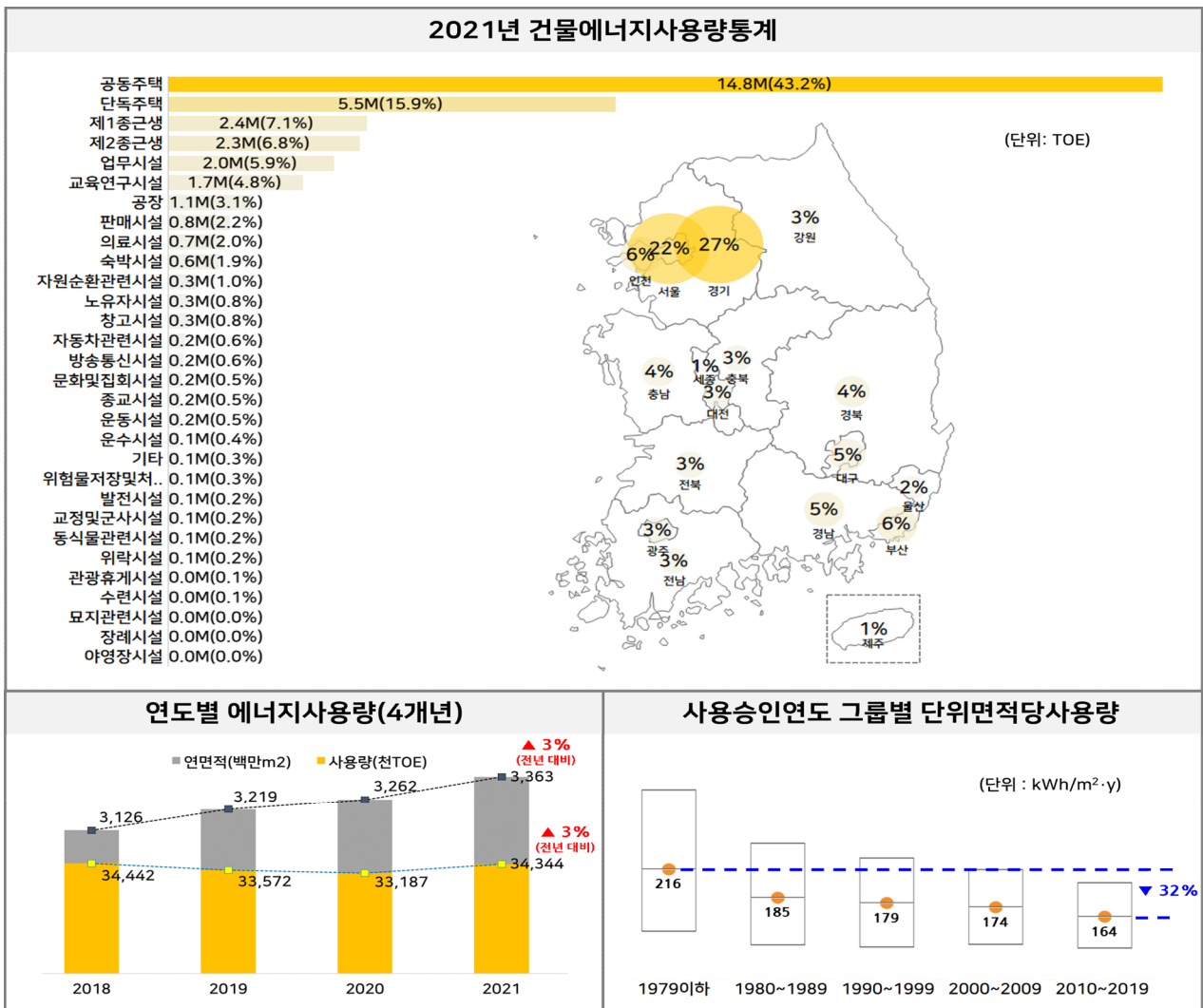


배포 일시	2022. 5. 31.(화)		
담당 부서	건축정책관 녹색건축과	책임자	과장 김태오 (044-201-3768)
		담당자	사무관 최철민 (044-201-3769)
	한국부동산원 녹색건축처	책임자	처장 김능진 (053-660-5300)
		담당자	부장 이동영 (053-660-5315)
보도일시	2022년 6월 1일(수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통신·방송·인터넷은 5. 31.(화) 11:00 이후 보도 가능		

단위면적당 건물에너지사용량 꾸준히 감소 - 그린리모델링 등 지속적인 녹색건축정책에 따른 에너지효율 향상 영향 -



(통계자료 source: 건축물 에너지·온실가스 정보체계)

□ 국토교통부(장관 원희룡)가 건축물 정보와 에너지사용량 정보(건축물 에너지·온실가스 정보체계)를 바탕으로 발표한 전국 모든 건물의 `21년 에너지사용량 통계*에 따르면 단위면적 당 건물에너지사용량이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

* '20.10.12 '건물에너지사용량통계' 국가통계 변경승인(제408003호, 한국부동산원)

○ 국토교통부는 한국부동산원(원장 손태락)과 함께 전국의 모든 건물을 대상으로 지역별(광역시도 및 시군구), 용도별(29종), 세부용도별(13종)*, 에너지원별(전기·도시가스·지역난방)로 에너지사용량을 집계하여 매년 5월말 건물에너지사용량통계를 발표하고 있다.

* 에너지사용량이 많은 용도 9종(공장 제외)에서 사용량이 가장 많은 대표 세부용도 선정

- 이번에 발표된 통계자료는 국토교통부 녹색건축포털(그린투게더, <http://www.greentogether.go.kr>) 건물에너지 통계서비스를 통해 모든 국민에게 공개되어 누구나 활용할 수 있다.

□ 2021년 전체 건축물 에너지사용량은 34,344천TOE*로 용도별, 시도별, 에너지원별(전기·도시가스·지역난방) 사용량은 다음과 같다.

* TOE(Ton of Oil Equivalent) : 석유환산톤, 1TOE=10⁷kcal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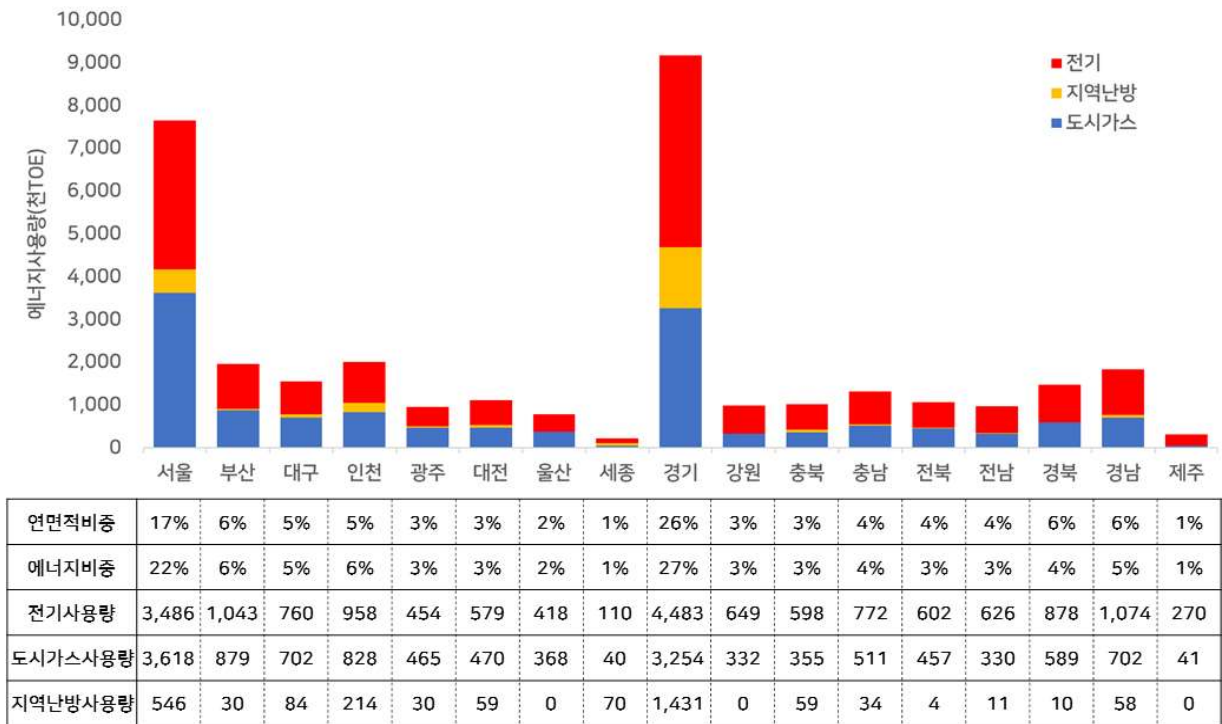
○ (용도) 전체 에너지사용량의 주거용이 약 60%를 차지(공동주택(43.2%), 단독주택(15.9%))하며, 나머지 비주거용에서는 근린생활시설(13.9%), 업무시설(5.9%), 교육연구시설(4.8%)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.

공동주택	단독주택	제1종근생시설	제2종근생시설	업무시설
14,825 43.2%	5,469 15.9%	2,425 7.1%	2,341 6.8%	2,025 5.9%
교육연구시설	공장	판매시설	의료시설	숙박시설
1,653 4.8%	1,053 3.1%	762 2.2%	697 2.0%	641 1.9%
자원순환관련시설	노유자시설	창고시설	자동차관련시설	방송통신시설
341 1.0%	259 0.8%	258 0.8%	217 0.6%	191 0.6%
문화및집회시설	종교시설	운동시설	운수시설	위험물처리시설
165 0.5%	160 0.5%	160 0.5%	129 0.4%	105 0.3%
발전시설	교정및군사시설	동식물관련시설	위락시설	관광휴게시설
85 0.2%	85 0.2%	60 0.2%	52 0.2%	38 0.1%
수련시설	묘지관련시설	장례식장	야영장시설	전체(기타포함)
20 0.1%	12 0.0%	7 0.0%	2 0.0%	34,344

<29종 건물 용도별 건물에너지사용량(천TOE)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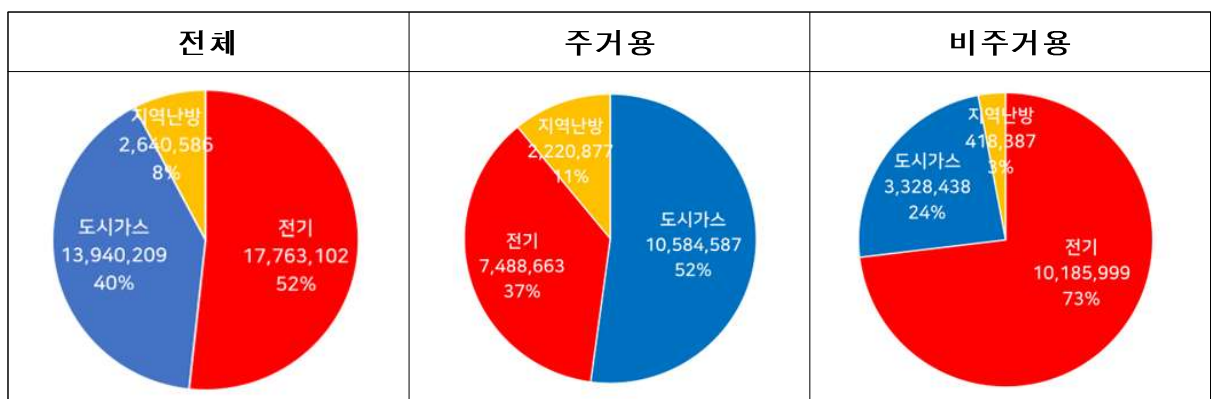
- (시도) 지역별로는 서울경기 지역이 전체 에너지사용량의 절반(49%) 가까이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, 그 중 서울지역은 연면적 비중(17%)에 비해 에너지사용량 비중(22%)이 높아 타 지역에 비해 단위면적당 에너지사용량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.

※ 석탄, 석유 등 전기, 지역난방, 도시가스 외 에너지사용량은 반영되지 않았음



<시도별 건물연면적 및 건물에너지사용량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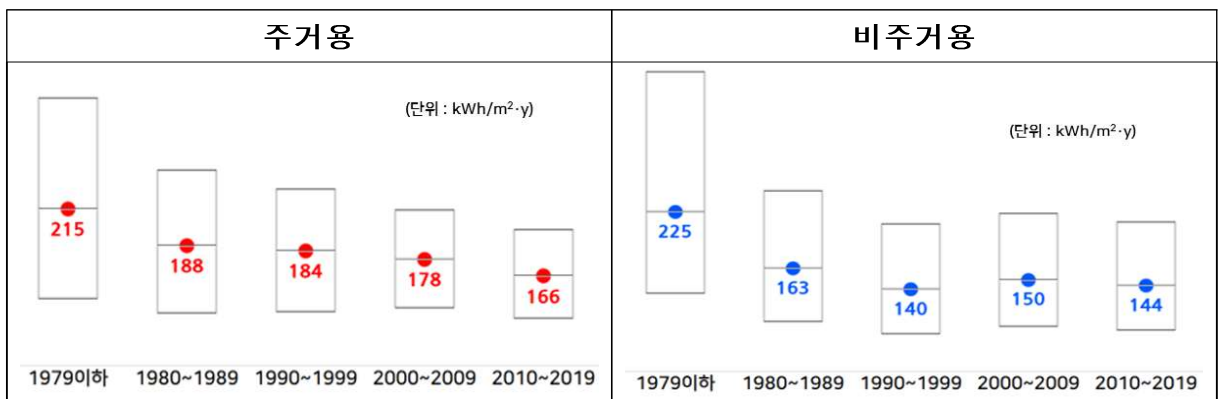
- (에너지원) 건물부문에서 사용된 에너지를 원(原)별로 분류하면 전기(52%), 도시가스(40%), 지역난방(8%) 순이었으나, 거주형태에 따라 세분하여 살펴보면 주거용은 도시가스(52%)가, 비주거용은 전기(73%)가 가장 많이 사용되는 에너지원인 것으로 집계되었다.



<에너지원별 건물에너지사용량(TOE)>

□ 한편, 단열기준 도입시점(1979년) 전·후부터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그룹(10년간격)별 연간 단위면적당 에너지 사용량을 시계열로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.

○ 단열기준 도입시점인 1979년 이전 사용승인 받은 건축물 대비 최근 10년 이내에 사용승인을 받은 주거용 건물은 23% (215 kWh/m²·y → 166 kWh/m²·y), 비주거용은 36% (225 kWh/m²·y → 144 kWh/m²·y) 단위 면적당 에너지사용량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.



<주거용 및 비주거용 건물의 사용승인연도 그룹별 2021년 단위면적당에너지사용량(중간값)>

- 이는 그동안 신축건축물에 대한 단계적 에너지허가기준 강화, 노후건축물에 대한 그린리모델링 추진 등 건물에너지효율 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녹색건축정책 추진이 에너지 사용량 감소 효과로 나타난 것으로 풀이된다.
- 특별히, 세종시는 2021년 건물에너지사용량 통계 중 전년대비 에너지 사용량 증가율(△7.8%)이 전국에서 가장 높았으나, 연면적 증가율(△8.6%)은 그보다 낮아, 에너지효율이 높은 건축물의 보급과 단위면적당 에너지사용량 감소와의 상관관계를 보여주는 사례로 볼 수 있다.

□ 국토교통부 엄정희 건축정책관은 “매년 발표되는 건물에너지사용량 통계로 지역별·용도별 건물에너지 사용경향, 다양한 지표와의 상관관계 분석 등을 통한 건물부문 탄소 저감 정책을 발굴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된 만큼 앞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” 면서,

- “국토교통부는 건물에너지 사용량 및 효율 등의 다양한 지표를 분석하고 건물부문 온실가스배출량 통계로 확대하는 등 건물에너지사용량 국가 승인통계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하여 공공부문 디지털정보 공유기반 마련을 통한 디지털플랫폼 정부구축에 기여할 계획” 이라고 밝혔다.

□ **통계명 / 통계종류**

건물에너지사용량통계 / 일반통계(가공통계)

□ **작성목적**

건물 용도별·지역별 에너지 사용량 통계 공표를 통한 건물 에너지 사용량 저감 및 온실가스 감축을 장려하고 정책수립 기초자료 제공

□ **작성대상**

전기, 도시가스, 난방 사용량 정보가 매칭*되는 전국 건축물대장 등재된 건물

* 건축물대장상 건축물 정보와 에너지 공급기관의 고객정보의 일치여부 확인

□ **작성방법**

건축물 에너지·온실가스 정보체계 DB 활용하여 통계작성

□ **작성주기/기준일**

매년/ 익년 5월

□ **작성항목**

- 용도별·지역별 건물에너지사용량(종합)
 - 용도별/지역별(시도/시군구별)
- 건물 용도별 에너지사용량(29종)
 - 지역별(시도/시군구별)
- 주거용건물 대표 세부용도별 건물에너지사용량(6종)
 - 단독주택(세)/다중주택/다가구주택/아파트/연립주택/다세대주택
- 비주거용건물 대표 세부용도별 건물에너지사용량(7종)
 - 일반음식점/소매점/사무소/대학교/여관/종합병원/상점